

# 로컬 거버넌스의 실현가능성에 대한 공동체의식의 매개효과

- 도서관서비스를 위한 협력을 중심으로 -

## The Mediating Effects of Sense of Community on the Possibility of Local Governance

- Focused on the Cooperation between Libraries and Public Administration Field -

박 성 우(Seong-Woo Park)\*

홍 소 램(Soram Hong)\*\*

### 〈 목 차 〉

- |                |                 |
|----------------|-----------------|
| I. 서론          | 2. 조사개요 및 분석방법  |
|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IV. 실증분석        |
| 2. 선행연구        | 1. 기술통계         |
| II. 분석적 논의     | 2. 적합도 및 타당성 판단 |
| 1. 공동체의 이론적 논의 | 3. 연구모형 검증      |
| 2. 로컬 거버넌스     | 4. 소결           |
| III. 연구방법      | V. 결론           |
| 1. 연구모형 및 가설   |                 |

### 초 록

이 연구는 거버넌스에서 도서관의 역할을 규명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거버넌스는 사적 행위자가 정치행정과정에 참여함으로써 성립되는데, 현대 사회의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주체의 협력을 중시하기 때문이다. 공동체는 공공성을 가진 사적 행위자로서 거버넌스가 직접민주주의를 실현하게 돕는다. 또한 도서관은 공동체를 육성하는 기관이기도 하고 때로는 공동체 그 자체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 연구는 문헌연구를 통해 공동체와 거버넌스의 관계, 도서관과 공동체의 관계를 규명한다. 그리고 문헌연구를 바탕으로 실증연구를 수행하여 도서관과 거버넌스의 관계를 규명한다.

키워드: 로컬 거버넌스, 지역공동체, 공공도서관, 작은도서관

### ABSTRACT

The study is to establish the role of libraries in governance. Governance is valid when private actors participate in it. Because it emphasizes the cooperation with actors in diverse sectors for solving complex problems in society. Communities as private actors with publicness help governance actualize direct democracy by participating in governance. Libraries are institutes that foster communities, but in some cases libraries are communities themselves. Therefore, the study reviews literature to prove the relationship between communities and governance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libraries and communities. On the basis of literature reviews, the study conducts the survey to prove the relationship between libraries and governance.

Keywords: Local governance, Community, Public library, Small library

\* 광주대학교 문헌정보학과 조교수(culturepark@gwangju.ac.kr) (제1저자)

\*\* 전남대학교 문헌정보학과 박사과정(gardenofstone@naver.com) (교신저자)

•논문접수: 2019년 2월 21일 •최초심사: 2019년 2월 28일 •게재확정: 2019년 3월 12일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50(1), 199-224, 2019. [http://dx.doi.org/10.16981/kliss.50.201903.199]

## I. 서론

###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구립 구산동도서관마을은 주민들의 손에 의해 만들어진 결과물이다. 관 주도에 의해 계획적으로 형성된 것이 아니라 2006년부터 지속적으로 이어진 구산동 주민의 요구에 의해 주민 참여예산사업에 선정됨으로써 은평구와 지역주민이 협력하여 지어진 도서관이다. 또한 지역 주민의 의견을 반영해 연립주택 3개를 하나의 건물로 이어 리모델링함으로써 기존에 있던 도시조직을 그대로 살려 마을 같은 건물구조를 만들어 2016년 ‘대한민국 공공건축상’ 대상과 ‘서울시 건축상’ 대상을 받았다. 도서관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업체로서, 도서관의 기획 및 설계단계부터 의견을 개진하고 협력해온 ‘은평도서관마을협동조합’이 선정되어 위탁운영 중에 있는, 전국 최초의 협동조합 운영 구립공공도서관이기도 하다(임유경, 김수빈, 김지현 2017).

구산동도서관마을은 도서관이 공동체의 목표이자 공동체의 활동거점, 그리고 공동체 그 자체로서 가진 상징성을 보여준다. 기획, 설계, 건축, 운영 등 전 단계에서 주민의 의사가 반영되었다는 점에서 지역공동체가 어떤 방식으로 얼마나 강력하고 주체적으로 행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하다. 한편으로는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주민의 의사를 수용하고 소통하려는 관의 의지가 없었다면 이루어질 수 없는 성과이기도 할 것이다. 하나의 도서관이 만들어지고 그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성공적인 민관협력이라는 점에서는 성공적인 거버넌스를 연상시킨다.

이러한 거버넌스의 성공적 사례가 다른 곳이 아니라 도서관이라는 점은 의미심장하다. 작은도서관은 지역공동체의 거점으로서 시민사회를 대변해왔고 주체적·자발적으로 운영되어왔다. 공공도서관은 관에 의해 계획적으로 만들어져 지역사회에 공공적 정보서비스를 통해 공동체의 구성원인 시민의 자기학습을 지원해왔다. 그러나 구산동도서관마을의 사례는 ‘구립’공공도서관으로서 관의 영역이면서도 동시에 ‘협동조합이 위탁운영하는’ 시민사회 주도의 민의 영역이다. 이 사례는 지역공동체로서의 작은도서관, 정보서비스 공간인 공공도서관의 경계를 허물며 도서관이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가능성을 의미한다.

이에 본 연구는 도서관이 가지고 있는 잠재적 역할확장성에 집중한다. 도서관은 서비스 수혜자로서 지역공동체를 배제하고 설명할 수 없으며 지역공동체는 도서관의 존재당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질적으로는 ‘관’으로서 가진 도서관의 이중적 성질은 특별하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사전 적격성 요건 중 하나으로써 ‘주민주도 조직 등 구성·운영’을 제시하는 것처럼(국토교통부 2018, 47) 지역공동체의 참여는 이제 제도적으로 자리잡아가며 강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 연구는 ‘공동체’이자 동시에 ‘관’인 도서관이 민관협력을 통해 구축되는 거버넌스에서 어떤 역할을 수행하는지를 검토한다. 이를 통해 도서관의 가치와 지속가능성을 실증적 차원에서 분석하고자 한다.

따라서 이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공동체와 거버넌스, 주민참여의 관계를 분석하여 거버넌스, 특히 로컬 거버넌스에서의 지역공동체의 중요성을 입증하는 것이다. 둘째, 로컬 거버넌스에서의 도서관의 역할을 공동체 육성의 차원에서 분석함으로써 도서관 역시 거버넌스에 참여하는 주체가 될 수 있음을 입증하는 것이다.

## 2. 선행연구

지역공동체가 지역주민들로 구성된 실행력을 갖춘 결사체로서 주민참여와의 관계를 증명하는 연구는 다양하고 꾸준하게 제시되었다. 그러나 지역공동체가 거버넌스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문제는 실증적 연구가 적다. 이론적 차원에서는 지역공동체가 주민자치의 전제가 되는 개념이며 지역공동체거버넌스가 주민자치의 실현으로 접근된 바 있다(곽현근 2015; 2017). 한편 지역공동체와 주민참여의 관계 형성의 어려움으로, 주민자치·주민참여·행복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공동체의식이 독립변수일지, 종속변수일지 아니면 매개변수일지 또한 접근이 상이하다. 서재호(2013)는 주민자치의 참여가 공동체의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반면, 최문형과 정문기(2015)는 공동체의식이 주민참여에 미치는 영향으로 인과적으로 반대되는 방향을 살폈다. 김학린(2017) 역시 지역사회 조정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공동체의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였고, 김이수(2016)는 지역주민의 주관적 웰빙을 위한 조절변수로서의 공동체의식을 검토하였다.

반면 도서관이 거버넌스에서 갖는 역할에 대한 연구는 드물다. 도서관과 공동체의 관계는 작은도서관 중심의 사례연구로 다수 증명되었다. 작은도서관 자체를 공동체로 보는 관점(이성신, 성희자, 이세나 2018), 지역공동체의 형성을 뒷받침하는 계기(양영균 2012), 대안적 지역 커뮤니티 거점(최재연, 김찬호 2015) 등 다양한 가치증명이 포함되었다. 그러나 행정학의 영역에서 공동체와 주민참여, 거버넌스의 관계를 연구한 논문은 이론적·실증적으로 다양한 반면 문헌정보학계에서는 이를 확장하여 도서관과 주민참여, 도서관과 거버넌스로 이어지는 연구는 찾아볼 수 없었다.

따라서 이 논문은 문헌분석을 통해 공동체·주민참여·거버넌스의 관계를 분석하고, 도서관과 공동체의 관계를 설명하고자 한다. 이러한 문헌분석을 바탕으로 도서관과 거버넌스의 연관성을 실증연구를 통해 입증하고자 한다. 거버넌스의 관점에서는 도서관을 거버넌스의 주체 중 하나로 조명한다는 점에서, 도서관의 관점에서는 공동체 형성을 거버넌스의 기능이자 도서관의 역할로 증명한다는 점에서 다른 연구와 차별점을 둔다.

## II. 분석적 논의

### 1. 공동체의 이론적 논의

#### 가. 실체로서 공동체의 요건

퇴니에스는 인간의 결사체를 두 종류, 즉 공동체(Community, 독일어로 Gemeinschaft)와 사회(Society, 독일어로 Gesellschaft)로 정의 내렸다. 그는 공동체를 본연적 인간으로써의 상호이해적 관계가 형성되는 전통적인 삶의 현장으로, 사회를 자본주의 사회의 화폐 교환 체제 아래서 발생한 이성적 사고와 양적 가치 기반의 근대적 양식으로 보았다. 퇴니에스 본인이 어느 쪽의 좋고 나쁨을 가르치지 않은 것과 별개로 그의 주장은 근대 사회에서의 공동체 상실 현상을 지적하는 바탕이 되었다. 공동체를 사회와 비교한 퇴니에스의 정의는 공동체 재생을 일종의 해답으로 여기는 우리의 사고와 무관하지 않다(김영정 2008, 8-9; 김미영 2015, 189-191).

이러한 점에서 현대사회에서 논해지는 공동체는 가치중립적이지 않다. 공동체가 아닌 다른 형태의 결사체, 예컨대 회사나 조직 혹은 사회 등과 같은 제도적·집합적 단위들에게 얼마나 ‘공동체적인지’를 묻는 것은 공동체가 가진 특성 즉 ‘공동체성’이 공동체와는 분석적으로 구분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동시에 공동체가 아닌 다른 결사체조차도 공동체의 여러 가지 의미 요소를 충족할수록 좋다는 공동체 지향의 표현이기도 하다(김미영 2015, 186-187, 212).

한편으로 공동체는 공동체‘주의’로서 하나의 이론으로 정의되기도 하므로 이런 점에 있어서도 공동체는 가치지향적이다. 또한 공동체주의는 현대 자유주의 이론의 토대가 된 롤스의 입장에 반하는 샌들, 매킨타이어, 테일러, 왈쩌 등의 비판에 의해 천명되었다(Mulhall and Swift 2002, 71). 이런 점에서 공동체주의에서의 공동체 개념은 규범적인 동시에 대안적이다. 다만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가 완전한 평행선 관계는 아니다. 특히 국가에 대한 관점에서 그러하다. 정도의 차이는 존재하나 두 관점 모두 국가의 부당한 억압과 권력행사를 경계한다. 자유주의는 국가-사회의 이분적 관점을 바탕으로 최소한 국가가 중립성을 가지기를, 최우선적으로는 개인의 권리를 우선하는 방향으로 최소화되기를 바란다. 반면 공동체주의는 정부-시장-시민사회의 삼각구도를 통해 국가가 ‘좋은 삶’에 대한 성찰을 바탕으로 조정의 역할을 수행하며 공공권역(public sphere)에서 비국가적 공동체들을 주축으로 담론과 의사결정이 주도되는 공동체지향적 국가를 선호한다(이종수 2015, 43-58).

공동체의 비국가성은 자본주의, 국가주의, 정보화주의와 같은 일방향적 논리에 저항하는 의미로서의 지역 운동과도 연관된다. 현대 사회의 주요 특징이 이동성이지만, 그 이동성 또한 결국 특정한 장소에 대한 선호의 표현으로서 엄존하는 ‘비이동성’을 보여준다. 즉 사람들이

특정한 장소를 선택하여 이동하는 것은 교육, 양육, 집 소유 등과 같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투자한 결과이다(김미영 2015, 203-204).

그러한 장소에 애착을 가지고 모인 사람들이 공동체를 실체로서 형성하는지 여부는 지역 운동이 일어나는가에 달려있다. 예컨대 성미산 마을은 서울시 배수장 건설 계획에 반대하여 공동육아 어린이집과 방과후교실 교사들이 주축이 되어 마을을 지켜낸 것을 계기로 하여 가장 대표적인 마을공동체의 사례로 알려지게 되었다(유창복 2009, 24-29). 이 사례에서 지역 운동은 거주민의 삶의 양식을 지켜내기 위한 것으로써 동태적이고 정치적인 상호작용의 결과물이다. 결국 글로벌화가 초래한 자본주의, 국가주의, 정보화주의 등의 변화로 말미암아 지역의 자족성이 파괴된 현대에 지역 기반의 공동체는 지역 운동을 통해서 다소간 계획적이고 의도적으로<sup>1)</sup> 형성된다. 공동체는 가치와 목표를 공유하여 함께 움직이며, 그 자체로써 개인주의적 삶에서 벗어나 삶의 면면을 협동적으로 꾸리고자 하는 변혁적 움직임이다(김미영 2015, 204-205, 210-211).

공동체라는 단어가 일종의 신화(myth)로 취급되는 시점에서 이를 한 두 문장으로 정의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단 실체로서의 공동체가 최소한 어떤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이상의 논고를 통해 분석적으로 도출해볼 수 있다. 종합하자면 가치지향성, 대안적 운동성, 공통된 지리적 범위를 가지고 생활을 협동적으로 공유하는 활동을 할 때 그러한 결사체를 우리는 최소한 ‘(지역)공동체’라 부를 수 있을 것이다.<sup>2)</sup>

#### 나. 지역공동체의 행위로서 주민자치

지역공동체(community)라는 개념은 우리의 학문적 토양에서 나온 개념이 아니다. 영미권에서 지역공동체로 다루는 논의가 우리나라에서는 주민자치라는 개념으로 회자되고 있다(곽현근 2015, 283). 주민자치는 지방자치의 2가지 유형 중 하나로, 지방자치의 유형은 지방정부가 가지는 지위에 따라 단체자치와 주민자치로 나뉜다. 단체자치는 중앙정부의 지역단위 종합 지방행정기관이자, 중앙정부가 새로 부여한 자치정부라는 이중적 지위를 가지는 형태를 의미한다. 주민자치는 중앙정부의 체계가 자리 잡기 이전에 지역주민들이 스스로 자치기구를 결성하여 자치정부라는 단일 지위를 가지는 형태를 의미한다(김병준 2015, 12-13).

그러나 단체자치와 주민자치는 최소한 학술적 의미에서는 상호배타적이지 않다. 공적 책임을 가진 단체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로부터의 독립성을 가져야 한다는 원리가 단체자

1) ‘계획적이고 의도적으로’라는 표현은 개별 사건에 대해 목적의식을 가지고 짜여진 구조 하에서 행해졌다는 의미와는 거리가 멀다. 오히려 생활현장의 문제해결을 위한 개선의 의지를 가졌다는 점에서 ‘규범적’이라는 의미가 더 강하다.

2) ‘지역’을 괄기한 이유는 현대사회에서 실체로서 존재하는 공동체가 주로 지역을 기반으로 형성되기 때문이며 본고의 이후 논의가 지역공동체를 중심으로 전개되기 때문이다. 지역을 기반으로 하지 않으며 자기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실천공동체 또한 공동체로서 존재하나 본고에서는 로컬 거버넌스와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 지역을 중심으로 정의를 단순화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김미영(2015) 참고.

치이며, 이러한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주민이 자유롭게 구성하고 통제할 수 있도록 민주성을 가져야 한다는 원리가 주민자치이다. 중앙정부로부터의 의사결정 독립성과 지역주민에 의한 민주성을 함께 가져야지만 지방정부는 지역의 일을 대표성과 책무성을 가지고 처리할 수 있다. 따라서 두 개념은 상호보완적이며, 특히 지역주민에 의거한 민주성을 염두에 둔다는 점에서 주민자치는 지역공동체와 관련 있다(곽현근 2017, 4).

이론적으로도 자치공동체 개념은 공동체주의가 자유주의와 합의할 수 있는 지점이다. 자유주의와 공동체 모두 국가권력에 의한 완전한 통제는 배격한다. 어디까지나 각 이론에서 중점으로 두고 있는 것은 개인의 자치권 혹은 시민사회의 자치로써, 두 이론 모두 비국가적 주체에 의한 자치를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이다. 그 주체가 누가 될 것이며 국가권력의 관여 수준을 어디까지 둘 것이냐에 대한 차이가 있지만, 두 이론은 모두 공적 영역(public sphere)을 강조함으로써 합의점을 만들고 서로에 대한 우려점을 보완한다. 이곳에서 개인들이 스스로 합의하여 결사체를 만듦으로써 원자화된 개인이 규합하고(자유주의), 비국가적 공공성<sup>3)</sup>을 담보하는 중간 형태의 공동체들이 유지됨으로써 국가주의와 전체주의의 결합을 방지한다(공동체주의). 이런 점에서 자치공동체는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의 합의점이자 결합물 혹은 대안이기도 하다(이종수 2015, 58-60).

또한 주민자치가 실제로 논의되는 현장 역시 실제로서 실현되는 지역공동체와 범위가 유사하다. 지방자치나 지역공동체에서 논해지는 ‘지방’, 혹은 ‘지역(local)’이 물리적 혹은 지리적으로 특정한 범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공동체는 사람들의 유대감과 소속감이 보다 규모가 작고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공통의 생활규모에서 더욱 수월하게 형성된다. 한편 주민자치에서 주민들이 경험하는 일상생활은 구체적 실천을 통해 생생한 경험과 실제적 사회관계를 형성하는 ‘현장’의 의미를 내포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면대면 상호작용이 가능한 마을(읍·면·동) 단위의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주민자치와 지역공동체의 논의는 같은 방향성을 가진다(곽현근 2015, 283; 곽현근 2017, 7-8; 김미영 2015, 198).

생활이 이루어지는 현장에서 주민들은 지역문제의 해결을 위해 함께 참여하고 협력하며 이런 활동이 주민자치라고 정의되기도 한다. 효과적인 지역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공공뿐 아니라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이들의 역량이 중요하다. 한편으로 마을공동체의 형성이란 문제해결을 위해 지역사회와 구성원의 강점을 발견하고 역량을 강화하며 상호간의 사회자본과 유대·애착감을 형성하는 것으로써 지역주민의 내적·외적 변화를 수반한다(김수영, 오찬옥, 문경주, 류지선 2014, 339-341; 곽현근 2015, 283).

이상의 논고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주민자치는 주로 마을(읍·면·동) 단위에서 주민들이 지역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합의하는 민주적 의사결정 행위이다. 지역공동체는 공통의 가치를 공유하는 일정 지리적 규모의 거주민들이 상호간의 애착과 유대감을 바탕으로 문제해결을 위

3) 공동체주의에서의 공공성은 국가에 의해 주도되는 공공성을 의미하지 않는다. 오히려 시민사회적인 관점에 가깝다. 이종수(2015) 참고.

해 합의한 결사체이다. 지역공동체는 주민자치보다 우선하며, 주민자치는 지역공동체를 전제한다. 따라서 주민자치는 지역공동체가 문제해결을 위해 행하는 행위로 정의된다.

#### 다. 공동체의식의 측정

어떤 집단이 얼마나 공동체적인가 혹은 높은 수준의 공동체인가를 판별하는가에 있어서 공동체의식(Sense of Community, SOC)은 좋은 측정도구가 되어왔다. 공동체의식에 관한 가장 유용한 연구 중 하나인 McMillan과 Chavis(1986)의 논고에서는 공동체의식을 “멤버들이 소속되어있다는 느낌, 멤버들이 다른 이와 그룹을 중요하게 여긴다는 느낌, 자신들의 요구가 함께하는 과정에서 그들의 헌신을 통해 충족될 것이라는 공유된 믿음(McMillan and Chavis 1986, 9)”이라고 정의하였다. 이 정의는 연대감(Membership), 욕구의 충족과 통합(Integration and fulfillment of needs), 상호영향의식(Influence), 정서적 연계(Emotional connection)의 배타적이고 명료한 4가지 기준을 통해 구성되었다.

McMillan과 Chavis(1986)가 정의한 4가지 기준은 수많은 실증연구에서 공동체의식의 요인으로써 응용되어왔다. 단 다차원적이지 않다는 한계로 인해 연구마다 각 요인의 문항 구성은 연구마다 상이하다. 이에 따라 공동체의식의 구성요인 또한 4개가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정의되기도 하였다. 대표적으로 Long과 Perkins(2003)는 요인분석을 통해 사회적 연결(Social connections), 상호 고려(Mutual concerns), 공동체 가치(Community values)로 구성된 간략화된 공동체의식 지표 요인을 제시하였다. 전지훈과 정문기(2017)는 공동체 인식과 행복의 영향관계를 분석함에 있어 McMillan과 Chavis를 중심으로 한 공동체의식<sup>4)</sup>과 더불어 적극적 참여의식과 지속가능성을 위한 조직학적 차원에서의 공동체역량을 요인으로 제시한 바 있다.

국내에서는 김정준과 김성수(1998)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McMillan과 Chavis(1986)의 연구를 참고하여 공동체의식을 측정한 바 있다. 이들의 문항은 향후 국내에서 진행된 공동체의식의 측정 연구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특히 공동체의식은 공동체와 주민자치의 연관성을 해석하기 위해 유용하다. 주민자치와의 관련성 속에서 주민자치 활동에 참여하는 집단별로 공동체의식의 수준을 알아보거나(서재호 2013), 공동체의식이 주민참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거나(최문형, 정문기 2015), 지역사회의 조정활동에 참여한 집단별로 공동체의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거나(김학린 2017), 지방자치단체 주민들의 속성에 따른 주관적 웰빙을 조절하는 요인으로서 공동체의식을 적용하거나(김이수 2016) 하는 등 사회현상을 설명하는 하나의 변수로서 적용하였다.

4) 전지훈과 정문기(2017)는 논문 내에서 Sense of Community의 번역어로 공동체성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으나, 본고에서는 통일성을 위하여 ‘공동체의식’이라는 표현으로 같음하도록 한다.

## 2. 로컬 거버넌스

### 가. 거버넌스의 맥락과 개념

전통적으로 거버넌스는 통치(government)와 같은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하지만 현대에는 오히려 전통적 의미의 정부와 다른 의미에서 통용되고 있다. 이전에는 거버넌스가 통치와의 동의어 혹은 통치 행위를 나타내는 것에 그쳤다면, 1990년대를 기점으로 더 넓어지고 복잡하며 다차원적인 개념이 되었기 때문이다(박상필 2018, 40-41; Hufty 2011a, 167-168; Stoker 1998, 17). 거버넌스를 태생시킨 시대적 배경은 통치의 주체였던 정부능력의 한계에 따른 변화와 무관하지 않다. 다원화와 복잡화에 따른 사회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국가는 자신의 권한을 다른 조직과 기관에 분산시키고 사적 행위자와 더 많이 협력하게 되었다(박상필 2018, 39-40; Stoker 1998, 18).

사적 행위자의 참여는 통치에 수반되는 의사결정의 행위자를 복수로 만들었으며 다원화시켰다. 이처럼 사적 행위자의 참여를 중시할수록 거버넌스 개념은 정부 주도적 입장에서 시민 사회, 시장 등의 다양한 행위자와의 상호작용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정의된다. 특히 공공서비스 제공자로서의 국가와 수혜자로서의 사회 등 이분화된 개념에서 시민 또한 문제해결의 주체이고 공공재의 공동생산자이기에 시민참여를 적극적으로 강조한다. 이러한 시각은 주체가 국가-시장-시민사회로 다원화된 공동체주의의 접근과, 지역공동체를 바탕으로 형성되는 주민참여와도 유사한 측면이 있다(오수길, 이춘열 2018, 128-132; 이종수 2015, 57; Boyte 2005, 536; Stoker 1998, 19-21).

복수의 행위자가 참여함으로써 거버넌스의 결과물, 즉 의사결정은 기존의 정부 단독의 결과물과는 달라진다. 집합적 의사결정에 의한 책임은 정부에게 단독으로 지워지지 않는다. 이런 방식의 의사결정 체계는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보완하고자 하는 직접민주주의의 원리에 근거한다(Boyte 2005, 537; Stoker 1998, 17). 특히 거버넌스에서 강조되는 것은 시장보다도 시민사회의 참여에 의한 것이다. 행위자로서 시장의 구성원은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본질을 버리지 못하므로 양극화를 초래하는 시장실패의 가능성을 여전히 내포하고 있다. 그래서 보통 사적 행위자의 참여는 거버넌스라기보다 민영화의 관점에서 더 집중적으로 접근된다. 하지만 주권자로서 시민은 공익을 추구한다고 전제됨으로써 시민참여를 통해 민주적 정통성과 발언권을 보장받고 대의민주주의를 보완한다(박상필 2018, 39-40; 오수길, 이춘열 2018, 129-131; Stoker 1998, 18).

이처럼 시민사회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염두에 둔다는 점에서 거버넌스는 예측하기 어렵고, 성공을 보장할 수도 없다(Hufty 2011, 179). 그렇기 때문에 거버넌스를 이끌고(steering) 파트너십을 형성하며 네트워크를 조성하기 위한 정부의 역할은 여전히 매우 중요하다. 거버넌스의 맥락에서 정부의 역할은 기존의 정부주도형 파트너십에서와 같이 정부의



권위를 활용한 통치 매커니즘과는 다르다. 정부는 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정부의 업무를 수행할 거버넌스 네트워크를 조직하고, 공통의 논의의 장을 마련하고 논의를 이끌어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하기 때문이다(김의영 2011, 211; Stoker 1998, 23-24). 그러나 정부가 아무리 유연한 방식으로 집합적 행동을 이끌어도 여전히 거버넌스는 실패할 수 있다. 복잡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며, 때로 정부로서의 역할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비난과도 직면할 수 있고, 복수의 행위자들 사이에 권한의 경계가 흐려지면서 책임전가 문제가 여전히 상존하기 때문이다(Stoker 1998, 19).

종합하자면 거버넌스는 직접민주주의를 바탕으로 둔 다원화되고 복잡화된 사회문제의 공공적 해결을 위한 의사결정 매커니즘으로서 새로운 형태의 통치 절차(new process of governing)이다. 시민사회 등의 사적 행위자와 정부가 권한과 책임을 공유하여 협상·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공공의 가치를 생산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박상필 2018, 40-41; 김의영 2011, 211; Boyte 2005, 537; Stoker 1998, 536).

#### 나. 로컬 거버넌스 용어와 해석

거버넌스 관점은 다양한 세태나 발전상을 의도적으로 채택하여 우리의 주의를 잡아끈다. 거버넌스 관점의 가치는 이렇게 선택된 세태나 발전상이 얼마나 좋은지/나쁜지에 따라 결정된다(Stoker 1998, 26). 그래서 거버넌스는 거버넌스 단독으로 쓰이는 만큼이나 규모 혹은 가치를 표현하기 위해 어두에 다양한 수식어를 포함하여 쓰이기도 한다. 이런 관점에서 로컬 거버넌스(local governance)는 일차적으로 한 나라의 특정 지역에서 행해지는 거버넌스로 정의된다. 거버넌스의 성립을 위한 주요 조건은 정부와 정부 외 시민사회 행위자의 참여와 권한 행사이다. 즉 로컬 거버넌스는 지역주민들의 적극적 참여와 권한 행사를 중시하는 문제 해결 체계이다(김의영 2011, 211).

지역주민이 강조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로컬 거버넌스는 지역공동체가 문제해결을 위해 행하는 행위인 주민자치와도 맥을 같이한다. 다만 주민자치가 지역공동체의 자발적이고 주도적인 문제해결을 강조한다면, 로컬 거버넌스는 정부와 지역주민의 협력을 강조한다. 이런 점에서 로컬 거버넌스는 지역주민의 역량을 주목하는 협력적 거버넌스(collective governance) 또는 공동거버넌스(co-governance) 모델을 주목한다. 협력이라는 말 그대로, 로컬 거버넌스에 참여하는 정부와 지역공동체는 서로 다른 집합체의 대표로서 동등하고 수평적이다. 정부는 시민의 직접참여를 강조하며 지역주민의 권한을 강화하고 참여를 유도하며 역량을 배양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이를 통해 협력적 거버넌스 혹은 공동거버넌스는 지역공동체가 국가에 완전히 의존하지도, 완전히 독립하지 않으며 상호 의존할 수 있게 돕는다(김의영 2011, 211; 박현근 2015, 285-286).

협력적 거버넌스를 강조한 대표적인 학자인 Ansell과 Gash(2008, 544)는 협력적 거버넌스를 “1인 혹은 그 이상의 공적 행위자들이 비국가적 이해관계자들을 공식적으로 합의 목적·

심의 차원에서 협동적 의사결정 체계에 참여시키는 것이며, 그 목적은 공공정책을 만들거나 실현하고, 공공프로그램인 공공자산을 관리하는 데에 있다.”고 정의한다. 오수길(2018, 21)은 협력적 거버넌스의 주체와 영역을 민관협력, 관관협력, 민민협력 등의 3가지 상으로 구분하였다. 가장 전형적인 의미에서 연상되는 것은 민관협력이겠으나, 민관협력에 우선하여 칸막이 행정을 극복함으로써 외부의 자원찾기와 관계 맺기를 자연스럽게 추진할 관관협력이 수행되어야 한다. 지역공동체의 다양한 요구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다기능 부처간의 유연한 협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한편으로 시민사회단체를 비롯한 민간 부문에서도 전문분야별 활동을 융합해 연계성을 높이는 민민협력 또한 민관협력을 위한 토대가 된다.

이렇게 다양한 파트너를 두고 상호작용을 강조하는 조정양식은 그 양상에 주목한 참여거버넌스(participatory governance)로도 불리며 가장 보편적인 형태가 실재로써 존재하는 ‘공동체에 기초한 행정관리’이다(최성욱 2011, 2). 실체로서의 공동체가 지역공동체로서 형성됨을 고려할 때 참여거버넌스는 결국 지역공동체거버넌스(community governance)와도 연결된다. 협력적 거버넌스 혹은 참여거버넌스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자생력을 갖춘 지역공동체가 먼저 존재해야하고, 이들이 스스로 지역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하기 때문이다(김의영 2011, 213).

그래서 지역공동체거버넌스는 직접민주주의에 입각하여 주권이 지역공동체 구성원인 주민들에게로 옮겨짐을 시사한다. 이런 관점을 적용하면 주민자치의 영역도 더욱 확장되어 해석된다. 즉, 주민자치는 주민들이 스스로 하는 문제해결 뿐 아니라 행정과정에 참여함으로써 주민들의 의지에 의해 지방정부의 의사결정을 통제한다는 취지까지 포함하는 차원에서 확장될 수 있다(곽현근 2015, 284).

종합하자면, 로컬 거버넌스를 설명하는 공동거버넌스·협력적 거버넌스는 관의 입장에서의 해석이다. ‘협력’은 정부 입장에서 지역주민·공동체의 권한과 참여를 강화한 개념이기 때문이다. 한편으로 참여거버넌스·지역공동체거버넌스는 민 중심의 해석이다. 통치주체인 지역주민의 문제해결에 관이 조력한다는 관점으로 정의된 것이기 때문에 지역공동체의 입장에서 문제해결에 행정참여를 포함시킨 개념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직접민주주의적 관점에 의거하여 지역공동체의 자생력과 주체성을 염두에 둔다는 점에서 두 관점은 주민자치의 취지 아래 하나로 묶인다.

즉 로컬 거버넌스는 주민자치의 관점에서 지역주민들이 문제해결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하나의 수단으로 정의된다. 곽현근(2015, 287)은 주민자치를 “지역에 대한 애착과 주민들 사이의 유대의 토대위에 집합적 역량을 구축한 주민들이 지역문제를 스스로 또는 정치행정과정의 참여를 통해 해결해나가는 행위 또는 과정”이라고 정의한 바 있다. 로컬 거버넌스가 지역공동체 없이는 성립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지역공동체의 ‘정치행정과정의 참여’는 곧 그 자체로서 로컬 거버넌스로 해석된다.

#### 다. 로컬 거버넌스에서 도서관의 역할

지금까지의 논고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지역공동체는 가치지향성, 대안적 운동성, 공통된 지리적 조건 하에서 생활을 공유하는 실체로서의 결사체 중 하나이다. 이들이 문제해결을 위해 취하는 행위가 주민자치이다. 주민자치의 방법 중 하나로써 정치행정과정에 참여하는 수단을 활용할 수 있는데, 이 수단이 로컬 거버넌스로 해석된다. 즉 ‘지역공동체’는 ‘로컬 거버넌스’를 통해 ‘주민자치’를 할 수 있다. 이 관점에서 지역공동체는 주민자치와 로컬 거버넌스의 전제로써, 지역공동체가 없으면 주민자치와 로컬 거버넌스는 성립할 수 없다.

이러한 점에서 도서관의 역할은 공동체의 형성을 지원한다는 관점에서 거버넌스에서 중요하다. 먼저 작은도서관은 그 자체로 지역공동체로써 주민들을 활동가로 육성하고(이성신, 성희자, 이세나 2018, 94), 도시 속 지역공동체 형성을 위한 관계형성의 계기로 작용하거나(양영균 2012, 60), 기존 이론 하에서 지역 커뮤니티 거점이었던 초등학교를 대체하는 대안적 지역 커뮤니티 거점으로서 가능성을 인정받았다(최재연, 김찬호 2015, 180).

또한 공공도서관은 사회자본을 창출하는 사회통합기관으로써 공동체의 매개로서의 가치를 입증받아왔다(박성우 2014; 2016). 지역공동체의 특성을 가치지향성, 대안적 운동성, 공통된 지리적 조건으로 규정하였을 때 공공도서관은 그 매개로서의 조건에 부합한다.

첫째, 공공도서관의 존재당위가 정보의 공공성, 즉 정보평등의 실현을 통한 자기교육(self-education)의 실천과 시민사회의 육성에 있다는 점에서 공공도서관은 그 자체로 가치지향적이다. 둘째, 공공도서관은 정보평등의 실현이라는 과업 해결을 위한 실행공동체로서의 성격과 전통적 의미에서의 지역공동체의 특성을 모두 가지고 있다(박성우 2016, 304). 지역에 정주할 뿐 아니라 지역의 문제를 정보평등의 관점에서 해결하려는 관점에서, 또한 지역공동체인 작은도서관과 연계된다는 점에서 공공도서관은 대안적 운동성을 가진 공동체를 지원할 수 있다. 셋째, 공공도서관의 서비스 범위는 동부터 시 단위의 지리적 조건에 기반을 둔다. 일반적으로 지역공동체에서 조건으로 하는 읍·면·동 단위보다는 대개 규모가 크지만 특정한 지리적 조건과 해당 지역 구성원에게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도서관은 공통된 지리적 범위를 공유한다.

박성우(2016, 355)는 공공도서관과 지역사회의 관계를 실행공동체의 관점을 적용하여 4단계로 표현하였다. 그 중 3단계와 4단계는 문제해결을 위해 도서관과 지역사회가 상호신뢰하에 협력해야 함을 강조한다. 여기에서 도서관의 역할은 지역주민이 스스로 지역사회 문제 해결의 주체로서 인식하게끔 하는, 즉 지역공동체로서의 주민을 육성하는 매개자의 관계이며, 로컬 거버넌스에서 정부가 담당하는 매개로서의 역할에 해당한다.

논고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작은도서관은 실체를 가진 (지역)공동체이며, 공공도서관은 사회자본의 창출과 시민의 자기교육을 지원하는 공동체 육성의 장이기도 하다. 즉 도서관은 공동체로서도, 그리고 로컬 거버넌스의 매개자로서의 정부의 입장도 동시에 가진다. 따라서 도서관은 지역공동체와 로컬 거버넌스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는 좋은 사례 중 하나이다.

### Ⅲ. 연구방법

#### 1. 연구모형 및 가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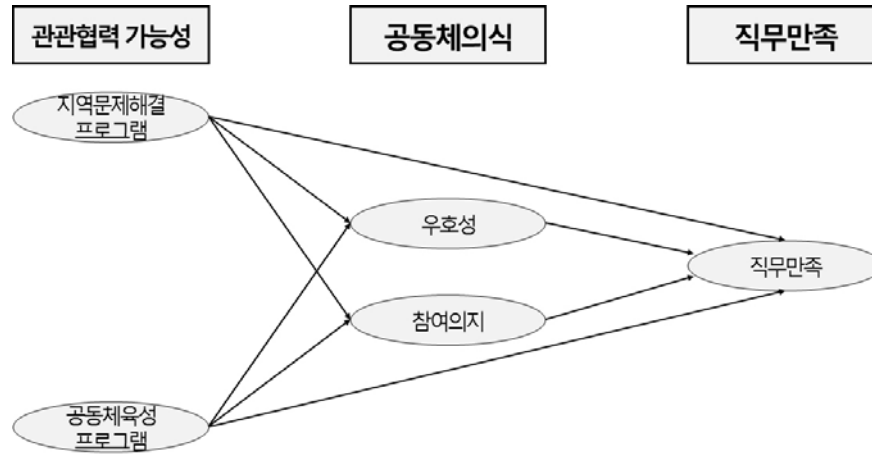
이상의 분석적 논의를 바탕으로 이 연구는 공동체의식, 로컬 거버넌스의 실현가능성, 로컬 거버넌스의 직무만족으로 구성된 연구모형을 다음 [그림 1]과 같이 도출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지역)공동체와 로컬 거버넌스의 관계를 증명함으로써 도서관의 거버넌스 기여를 증명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를 실증하기 위한 연구문제는 공동체의식이 로컬 거버넌스의 실현가능성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는 것으로 잡았다. 로컬 거버넌스의 실현을 위해서는 공동체형성이 전제되어야 하므로 공동체를 육성하는 공공기관인 도서관과 일반행정간의 관관협력이 우선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연구는 독립변수로서 도서관에서 수행된 주민자치 프로그램<sup>5)</sup>에 대해 ‘관관협력의 가능성’을 측정하였다. 해당 주민자치 프로그램은 박성우(2016)가 미국 공공도서관이 지역사회 문제해결을 위해 적용한 사례에서 도출하였으며,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 도출된 2개의 요인에 프로그램의 목적별로 ‘문제해결’, ‘공동체육성’으로 이름 붙였다.

다음으로 공동체의식은 이 연구의 핵심이다. 관관협력 가능성이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거버넌스의 전제가 되는 공동체의식이 업무 수행 시의 직무만족을 약화시키거나 강화시키는지 분석하고자 매개변수로 설정되었다. 공동체의식은 McMillan과 Chavis(1986)의 4개 요인에 맞춰 선행연구를 참조하여 구성되었으나,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2가지 요인으로 나뉘어 명칭을 귀납적으로 제시하였다.

중속변수는 로컬 거버넌스에 대한 ‘직무만족’으로 설정하였다. 로컬 거버넌스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지역공동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매개자인 공무원이 그 업무를 할 마음이 있어야 한다. 즉 업무가 효과적으로 수행된다는 기대가 있어야 한다. 따라서 논의된 바와 같이 공동체의식이 결사체에 소속된 개개인의 심리적 기작임을 고려하여 Thompson과 Phua(2012)의 간략화된 심리적 직업 만족도(Brief index of affective job satisfaction) 4개 문항을 적용하였다.

5) 이러한 프로그램들이 ‘주민자치’라고 명명된 것은 아니다. 하지만 지역사회의 문제를 발굴하고 주민들이 사서의 매개 하에 문제를 해결한다는 점에서 이 프로그램들은 주민자치의 조건을 충족한다. 자세한 내용은 박성우(2018) 참고.



<그림 1> 연구모형

단 지역문제해결 프로그램, 공동체육성 프로그램은 명칭이 길기 때문에 연구분석 과정에서는 ‘문제해결’, ‘공동체육성’ 등의 약어로 후술하였다. 이러한 구조에 따라 검증하게 될 구체적인 연구가설은 다음과 같다.

- H<sub>1</sub>. 관관협력 가능성은 공동체의식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H<sub>1-1</sub>. 지역문제해결 프로그램은 우호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H<sub>1-2</sub>. 지역문제해결 프로그램은 참여의지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H<sub>1-3</sub>. 공동체육성 프로그램은 우호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H<sub>1-4</sub>. 공동체육성 프로그램은 참여의지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H<sub>2</sub>. 공동체의식은 직무만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H<sub>2-1</sub>. 우호성은 직무만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H<sub>2-2</sub>. 참여의지는 직무만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H<sub>3</sub>. 관관협력 가능성은 직무만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H<sub>3-1</sub>. 지역문제해결 프로그램은 직무만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H<sub>3-2</sub>. 공동체육성 프로그램은 직무만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H<sub>4</sub>. 공동체의식은 관관협력 가능성과 직무만족을 매개할 것이다.
  - H<sub>4-1</sub>. 공동체의식은 지역문제해결 프로그램과 직무만족을 매개할 것이다.
  - H<sub>4-2</sub>. 공동체의식은 공동체육성 프로그램과 직무만족을 매개할 것이다.

## 2. 조사개요 및 분석방법

### 가. 변수 및 측정지표

이 연구는 공동체의식이 관관협력 가능성과 직무기대 간 관계를 매개하는 지, 즉 로컬 거버넌스의 실현가능성에 어떤 방식으로 개입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변수와 측정지표를 다음 <표 1>과 같이 설정하였다. 먼저 독립변수인 관관협력 가능성은 지역사회 문제해결을 위해 도서관이 적극적으로 지역사회에 개입하여 실시한 프로그램의 실 사례들을 그대로 준용하였다. 미국도서관협회(American Library Association, 이하 ALA)에서 2014년부터 2015년까지 실시한 지역사회를 변모시키는 도서관(Library Transforming Communities) 프로그램의 사례집과 해당 사례를 바탕으로 공공도서관의 실행공동체 실현 가능성을 연구한 박성우(2016)의 분석 표를 바탕으로 총 15개의 프로그램 사례를 문항으로 만들었고, 탐색적 요인 분석 결과 2개의 요인으로 나뉘어 각 요인별로 프로그램의 목적 및 형태에 따라 등의 '지역문제해결 프로그램'과 '공동체육성 프로그램'으로 요인명칭을 귀납적으로 제시하였다.

매개변수인 공동체의식은 McMillan과 Chavis(1986)의 공동체의식에 대한 4개 요인별 정의에 근거하여 국내·외의 연구를 참고해 각 연구들에서 공통된 문항들을 추출하여 연대의식 5개 문항, 상호영향의식 4개 문항, 통합 및 욕구충족 4개 문항, 정서적 연계 7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하지만 SPSS 21을 통한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연대의식 내의 3개 문항은 그대로 묶였으나, 상호영향의식과 통합 및 욕구충족, 그리고 정서적 연계의 문항이 다수 탈락하고 하나의 요인으로 묶였다. 이들 문항은 공동체에 대한 인식 뿐 아니라 공동체 속에서 자신의 역할과 관계에 대한 구체적인 질문들이 주를 이루었다. 따라서 McMillan과 Chavis(1986)의 해석에서 나아가 '우호성'과 '참여의지' 등의 요인명칭을 귀납적으로 제시하였다. 우호성은 '지역 전반에 대한 긍정적인 심리상태'를, 참여의지는 '지역구성원과의 실질적인 협력 의사'를 의미한다.

종속변수는 전술한 바와 같이 매개변수인 공동체의식이 개인의 심리적 기작임에 근거하여 심리적 직무만족을 측정하는 가장 간단한 지표 중 하나인 Thomson and Phua(2012)의 4개 문항 지표를 그대로 활용하였고 전체 문항이 유효한 것으로 채택되었다. 전체 문항은 7점 리커트 척도로 1점(전혀 그렇지 않다)에서부터 7점(매우 그럴 것이다)로 측정되었다.

### 나. 자료수집·분석 및 표본 특성

이 연구는 관관협력의 가능성을 알아보기 위해 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S시 공무원을 대상으로 2018년 4월에 설문조사 협조요청을 하여 오프라인으로 총 501부를 회수하였다. 이 중 결측값이나 중복응답 등 이상값을 SPSS를 이용하여 보완처리하여 전체 부수를 분석 대상에 활용하였다. 2018년 4월 기준 S시 홈페이지 기준 재직 공무원은 1,896 명으로, 26.8%의 응답자를 표본으로서 획득하였다. 엑셀프로그램으로 설문지를 코딩하였으

<표 1> 변수 구성 및 측정 내용

구분	기존변수	문항	수정변수	측정방법	문항 출처
매개 변수	연대의식	공동체 구성원 구분	탈락	근무 지역 인식 정도 (7점 리커트 척도)	McMillan and Chavis(1986); 김경준, 김성수(1998); 서계호(2013); Long and Perkins(2003); Peterson, Speer and McMillan(2008); 최문형, 정문기(2015); 전지훈, 정문기(2017)
		안정감·보호	탈락		
		지역 내의 역할	우호성		
		호혜성	우호성		
		지역이미지 인식 유무	우호성		
	상호영향 의식	영향력	탈락		
		공동체 구성원간 밀착정도	탈락		
		소통 정도	참여의지		
	통합 및 욕구충족	상호 영향 정도	참여의지		
		욕구충족 정도	참여의지		
		신뢰도	참여의지		
		주체적 의지	탈락		
	정서적 연계	기호 바탕으로의 유대감	참여의지		
		접촉 빈도	참여의지		
		화투의 긍정성	참여의지		
		문제해결 능동성	참여의지		
행사 참여도		탈락			
가치 공유에 대한 기대		탈락			
독립 변수	관관협력 가능성	모임 참여 기대	탈락	프로그램 성공 위한 도서관과의 협력필요 정도 (7점 리커트 척도)	ALA(2015); 박성우 (2016)
		유대감의 존재여부	탈락		
		주민과 함께 공원 청소	문제해결		
		시민단체 협력 환경정비	문제해결		
		지역이미지 제고 민·관협력	문제해결		
		주민·경찰간 간담회	문제해결		
		교통과 공무원·주민 간담회	문제해결		
		주민간담회 개최	문제해결		
		주민그룹 형성·지원	탈락		
		커뮤니티센터 건립	탈락		
		도심내 쇠퇴 공공지역 재건	탈락		
		공공장소 설치예술 시민참여	공동체육성		
		도서관 SNS 참여 보물찾기	공동체육성		
		지역주민 아카이빙	공동체육성		
대안고교 취업상담 및 강의 지원	공동체육성				
경찰 체험 프로그램	탈락				
10대 프로그래밍 세미나 캠프	공동체육성				
종속 변수	직무만족	즐거움	직무만족	관관협력 성립 시 직무 만족 기대감 (7점 리커트 척도)	Thompson and Phua(2012)
		애착	직무만족		
		열정	직무만족		
		만족기대	직무만족		

며 빈도분석 및 탐색적 요인분석은 SPSS Statistics 21을 이용하여 실시하였고, 확인적 요인 분석 및 구조방정식 분석은 SPSS AMOS 21을 이용하여 실시하였다. 참여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다음 <표 2>와 같다.

<표 2> 표본 특성

구분		빈도(%)	구분		빈도(%)
성별	남	199(39.7)	업무 분야	일반행정(주민자치 업무경험 有)	192(38.3)
	여	287(57.3)		일반행정(주민자치 업무경험 無)	206(41.1)
	무응답	15(3)		사서	14(2.8)
연령대	20대(20세-29세)	90(18)	현 근무처	기타	65(13)
	30대(30세-39세)	134(26.7)		무응답	24(4.8)
	40대(40세-49세)	148(29.5)		시청	186(37.1)
	50세 이상	128(15.5)		읍·면·동사무소	183(36.5)
	무응답	1(0.2)		평생학습문화센터(도서관운영과 외)	45(9)
현 거주지	S시	483(96.4)	근무 연차	도서관운영과	23(4.6)
	S시 외 지역	16(3.2)		개별 도서관	9(1.8)
	무응답	2(0.4)		기타	48(9.6)
출생지	S시	268(53.5)	근무 연차	무응답	7(1.4)
	S시 외 지역	227(45.3)		5년 이하	203(40.5)
	무응답	6(1.2)		5년 초과 10년 이하	56(11.2)
				10년 초과 15년 이하	60(12)
				15년 초과 20년 이하	32(6.4)
			20년 초과	146(29.1)	
			무응답	4(0.8)	

오프라인으로 설문지를 배포하였기 때문에 각 문항들에 체크가 누락된 무응답자들이 일부 발견되었으나, 표본의 특성을 반영한 분석을 실시하지 않기 때문에 그대로 전체부수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성별은 남성이 199명(39.7%), 여성이 287명(57.3%), 무응답자 15명(3%)으로 여성이 더 많이 응답하였다. 연령은 20대가 90명(18%), 30대가 134명(26.7%), 40대가 148명(29.5%), 50세 이상이 128명(15.5%), 무응답자 1명(0.2%)으로 전체 연령에서 고르게 응답하였다. 출생지는 S시 출생이 268명(53.5%)이고 무응답자가 6명(1.2%) S시 외 지역이 227명(45.3%)으로 거의 비등하였으나 현 거주지는 근무지인 S시가 483명(96.4%)로 압도적이었다. 업무분야로는 일반행정이 398명(79.4%)였으며 이에 따라 근무지 또한 시청 및 읍면동사무소가 더해 369명(73.6%)으로 대다수였다. 근무연차는 5년 이하가 203명(40.5%), 20년 초과자가 146명(29.1%), 무응답자 4명(0.8%) 등으로 나타났다.

#### IV. 실증분석

##### 1. 기술통계

주요 변수들의 기술통계는 다음 <표 3>과 같이 도출되었다. 매개변수에 속하는 우호성과 참여의지의 평균은 각각 4.72와 3.99로, 우호성이 참여의지에 비하여 0.73점 가량 높게 나왔



다. 참여의지 평균은 전체 변수 중 가장 낮는데, 이 항목이 공무원들이 지역공동체에 속한 구성원과의 협력 의사를 나타내는 항목이라는 점에서 이 결과는 시사하는 바가 있다. 독립변수에 속하는 문제해결과 공동체육성의 평균은 각각 4.51과 4.44로, 문제해결이 근소하게 높게 나타났으나 거의 차이가 없었다. 마지막으로 직무만족의 평균은 4.52로 중간 평점보다 근소하게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표 3> 잠재변수별 기술통계

구분	매개변수		독립변수		종속변수
	공동체의식		관관협력 가능성		직무만족
	우호성	참여의지	문제해결	공동체육성	
평균	4.72	3.99	4.51	4.44	4.52
표준편차	1.0584	0.9474	0.9911	0.9871	1.1080

## 2. 적합도 및 타당성 판단

연구모형의 분석에 앞서 연구모형의 가설을 검증하기에 수집된 데이터가 적합한지를 파악하기 위해 적합도 검증 및 타당도 검증을 실시하였다. 모형을 훼손하지 않으며 적합도를 높이기 위해 모형 수정을 2차례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로 구조모형에 대한 적합도가 다음 <표 4>와 같이 도출되었다. 절대적합지수인  $\chi^2$ 를 자유도로 나눈 값, GFI, RMSEA값은 각각 2.021, 0.924, 0.045 등으로 보편적인 판단기준에 부합하였다. 충분적합지수인 IFI와 CFI도 각각 0.967과 0.966이었고, 간명적합지수인 AGFI도 0.9 이상으로 도출되어 적합도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측정모형 적합도

적합도 측정모델	$\chi^2/df$	GFI	RMSEA	IFI	CFI	AGFI
수치	2.021	0.924	0.045	0.967	0.966	0.902
판단기준	$\leq 3$	$\geq 0.9$	$\leq 0.05$	$\geq 0.9$	$\geq 0.9$	$\geq 0.9$

집중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우선적으로 SPSS 21을 통해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고, 이를 통해 도출된 요인으로 AMOS에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 <표 5>와 같이 나타났다. 신뢰도 측정을 위한 Cronbach's  $\alpha$ 는 0.7 이상일 경우 신뢰성이 확보되었다 여겨지며 0.779~0.943으로 모든 잠재변수의 신뢰성이 확보되었다.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한 요인적재량의 검증 결과 최저 요인적재량이 0.568로써 모든 문항이 사회과학에서 일반적으로 유의한 변수로 여기는 0.5 이상을 충족하였다. 잠재변수별 AVE는 0.5 이상일 경우 타당하다 여겨지는데, 검증 결과 0.43~0.74 사이의 값으로 0.5 이상 혹은 0.5 근사치로

나와 집중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표 5> 측정모형 집중타당도 검증

구분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요인적재량	T-Value	Cronbach's α	AVE	C.R
문제해결	→ 문제해결6	1.000	0.744	-	0.885	0.47	0.84
문제해결	→ 문제해결5	1.119	0.806	17.930			
문제해결	→ 문제해결4	1.131	0.823	18.310			
문제해결	→ 문제해결3	1.061	0.807	17.955			
문제해결	→ 문제해결2	0.857	0.651	14.264			
문제해결	→ 문제해결1	0.919	0.669	14.696			
공동체육성	→ 공동체육성5	1.000	0.780	-	0.843	0.44	0.80
공동체육성	→ 공동체육성4	0.930	0.750	16.756			
공동체육성	→ 공동체육성3	0.933	0.741	16.515			
공동체육성	→ 공동체육성2	0.887	0.665	14.673			
공동체육성	→ 공동체육성1	0.819	0.663	14.616			
우호성	→ 우호성1	1.000	0.568	-	0.779	0.49	0.74
우호성	→ 우호성2	1.531	0.834	12.440			
우호성	→ 우호성3	1.524	0.819	12.371			
참여의지	→ 참여의지8	1.000	0.770	-	0.912	0.43	0.86
참여의지	→ 참여의지7	1.169	0.820	19.472			
참여의지	→ 참여의지6	1.109	0.748	17.465			
참여의지	→ 참여의지5	1.052	0.787	18.539			
참여의지	→ 참여의지4	1.028	0.722	16.749			
참여의지	→ 참여의지3	0.967	0.705	16.292			
참여의지	→ 참여의지2	1.041	0.708	16.383			
참여의지	→ 참여의지1	1.059	0.755	17.640			
직무만족	→ 직무만족1	1.000	0.900	-	0.943	0.74	0.92
직무만족	→ 직무만족2	0.991	0.920	32.673			
직무만족	→ 직무만족3	0.943	0.885	29.854			
직무만족	→ 직무만족4	0.964	0.885	29.804			

판별타당성은 각 잠재변수들이 다른 변수들로 구분될 수 있는 것인지를 판별하는 것이다. 잠재변수 간 상관계수의 제곱이 각 잠재변수의 AVE를 넘지 않는 경우에 판별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한다. 판별타당성 검증 결과는 다음 <표 6>과 같이 나타났다. 모든 상관계수가 각 잠재변수의 AVE보다 높게 나와 판별타당성이 입증되었다. 단 같은 공동체의식 아래의 요인으로 여겨지는 참여의지와 우호성 간에는 판별타당성이 검증되지 않았다. 하지만 판별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한 다른 방법으로써 상관계수와 표준오차를 이용한 식6)을 적용했을 때에 0.617~0.813 사이의 범위가 제시되었다. 이 범위에는 1이 포함되지 않으므로 판별타당성이 확보되었다고 여겨질 수 있어 해당 변수를 그대로 포함하였다.

6)  $(\rho \pm 2 \times S.E.) \neq 1$

<표 6> 측정모형 판별타당성 검증

구분	상관계수				
	지역문제해결(p <sup>2</sup> )	공동체육성(p <sup>2</sup> )	우호성(p <sup>2</sup> )	참여의지(p <sup>2</sup> )	직무만족
지역문제해결(p <sup>2</sup> )	<b>0.47</b>				
공동체육성(p <sup>2</sup> )	0.688(0.473)**	<b>0.44</b>			
우호성(p <sup>2</sup> )	0.386(0.149)**	0.387(0.15)**	<b>0.49</b>		
참여의지(p <sup>2</sup> )	0.35(0.123)**	0.327(0.107)**	0.715(0.511)**	<b>0.43</b>	
직무만족(p <sup>2</sup> )	0.482(0.232)**	0.597(0.356)**	0.474(0.225)**	0.471(0.222)**	<b>0.74</b>

\* <0.05, \*\* <0.01, \*\*\* <0.001. 대각선으로 굵게 된 수치는 각 잠재변수의 AVE값임.

### 3. 연구모형 검증

관관협력 가능성(문제해결, 공동체육성)과 공동체의식(우호성, 참여의지), 직무만족 간 인과모형의 경로계수를 분석하였다. 경로계수를 유형별로 나눠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를 산출하고 통계적 유의성을 산출한 효과분해는 다음 <표 7>과 같다. 모든 결과값이 정(+의 관계를 가졌으나 공동체육성과 우호성, 공동체육성과 참여의지 간의 경로계수는 각각 0.204, 0.105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고, 문제해결과 직무만족 간의 경로계수도 0.082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고 나타났다. 둘째, 관관협력 필요성 중 지역문제해결 프로그램 ( $\beta=0.303, p=0.007$ )은 우호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셋째, 지역문제 해결 프로그램( $\beta=0.256, p=0.004$ )은 참여의지에도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넷째, 공동체육성의 우호성( $\beta=0.150, p=0.26$ )과 참여의지( $\beta=0.239, p=0.01$ )는 모두 직무만족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다섯째, 문제해결( $\beta=0.106, p=0.004$ )은 공동체육성을 매개하는 경우에 직무만족에 대해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반면 공동체육성( $\beta=0.431, p=0.004$ )은 직무만족에 대한 직접 경로에서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표 7> 경로분석 효과분해

구분	경로 유형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	
독립-매개	관관협력 필요성 → 공동체의식	문제해결 → 우호성	0.303**	-	0.303**
		문제해결 → 참여의지	0.256**	-	0.256**
		공동체육성 → 우호성	0.204	-	0.204
		공동체육성 → 참여의지	0.105	-	0.105
매개-종속	공동체육성 → 직무만족	우호성 → 직무만족	0.150*	-	0.150*
		참여의지 → 직무만족	0.239*	-	0.239*
독립-종속	관관협력 필요성 → 직무만족	문제해결 → 직무만족	0.082	0.106**	0.188*
		공동체육성 → 직무만족	0.431**	0.055	0.486**

\* <0.05, \*\* <0.01, \*\*\* <0.001

#### 4. 소결

경로분석의 결과를 통해 가설의 채택여부를 정리하면 다음 <표 8>과 같다. 총 10개의 세부가설 중 6개의 가설이 채택되었고, 4개의 가설이 기각되었다.

<표 8> 가설 검증

가설	세부가설	채택여부
H1	H <sub>1-1</sub> . 문제해결은 우호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H <sub>1-2</sub> . 문제해결은 참여의지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H <sub>1-3</sub> . 공동체육성은 우호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기각
	H <sub>1-4</sub> . 공동체육성은 참여의지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기각
H2	H <sub>2-1</sub> . 우호성은 직무만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H <sub>2-2</sub> . 참여의지는 직무만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H3	H <sub>3-1</sub> . 문제해결은 직무만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기각
	H <sub>3-2</sub> . 공동체육성은 직무만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H4	H <sub>4-1</sub> . 공동체육성은 문제해결과 직무만족을 매개할 것이다.	채택
	H <sub>4-2</sub> . 공동체육성은 공동체육성과 직무만족을 매개할 것이다.	기각

연구모형을 통해 내린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문제해결은 공동체육성을 매개해야만 거버넌스의 실현가능성에 영향을 미친다. 단순히 지역문제해결 프로그램을 도서관과 함께 협력해야한다고 생각해도 그 자체로는 직무만족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지 않는다. 오히려 지역문제해결 프로그램은 공동체육성을 함양하는데 기여한다. 그리고 이렇게 형성된 공동체육성이 별도로 직무만족에 영향을 미친다. 즉 지역문제해결을 위해 결사체를 만들고 싶어 할수록 공동체육성이 향상된다. 분석적 논의에서의 성미산 사례가 이런 모습을 잘 보여준다. 육아에 대한 공통된 문제를 공유하는 지역주민들이 뭉쳐 ‘우리어린이집’을 만듦으로써 공동육아와 교육환경의 변화를 초래한 것처럼 말이다. 즉 이 결과는 (지역)공동체의 조건 중 하나였던 대안적 운동성이 공동체육성의 선행 조건임을 증명한다.

둘째, 공동체육성은 공동체육성을 매개하지 않았을 때 거버넌스의 실현가능성에 영향을 미친다. 공동체육성 프로그램은 문화·교육 등 전통적 도서관의 역할실천과 궤를 같이 한다. 그러나 오히려 이 연구에서 명명된 바와는 다르게 공동체육성을 기르는 데에는 유의한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 오히려 직접적으로 거버넌스의 성공가능성인 공무원의 직무만족에 대한 기대에 영향을 미쳤다. 즉 문화·교육 프로그램을 위해 결사체를 만들고 싶어할수록 개인의 직무협력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졌다. 이런 프로그램들은 지역문제해결처럼 나쁜 부분을 개선한다기보다 주민들이 즐겁고 행복하고자 하는 일종의 심화된 주민자치이며, 이미 지역 주민들 사이

의 관계가 끈끈하게 형성된 후 제공되는 서비스이다. 따라서 공동체육성이라기보다 ‘공동체 강화’라는 명칭이 더 적절했을 것이다. 공동체의식을 별도로 매개하지 않아도 이미 그 자체로 로컬 거버넌스가 강화되도록 하는 공동체의 기폭제이기 때문이다. 즉 이 결과는 이미 형성된 지역공동체가 로컬 거버넌스의 강화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증명한다.

셋째, 이 설문은 관관협력 필요성이 모두 도서관의 프로그램으로 설정되었기 때문에, 공동체육성 프로그램의 로컬 거버넌스 실현 가능성이 지역문제해결 프로그램보다 더욱 높았다. 관점을 달리하면 지역문제해결 프로그램은 일반행정영역의 전통적 주민자치 업무이고, 공동체육성 프로그램은 도서관영역의 전통적 프로그램제공 업무이다. 현장 일선에서 주민의 생활과 결부된 실제 문제해결에 관한 영역( $\beta=0.188, p=0.042$ )보다도 주민참여 문화·교육 프로그램( $\beta=0.486, p=0.004$ )이 총효과가 훨씬 높았다. 이 결과는 도서관의 로컬 거버넌스 참여 영역이 (지역)공동체의 문제해결을 위한 직접 실천보다도 공동체를 지원하거나 공동체를 강화하는 매개임을 증명한다.

## V. 결론

주민자치는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고 직접민주주의의 가치에 기반하여 마을(읍·면·동) 단위의 현장에서 스스로 의사결정과 문제를 해결하는 메커니즘을 일컫는다. 이런 개념은 영미등지에서는 지역공동체의 개념으로 회자되어왔다. (지역)공동체는 개념적 모호성으로 인해 완벽히 합의되지는 못하지만 일반적으로 가치지향성, 대안적 운동성, 일정한 지리적 범위 등을 그 최소한의 요건으로 삼는다. 지역공동체는 주민자치에 선행하며 자치를 하는 주체이다. 로컬 거버넌스는 시민참여가 없이는 성립될 수 없다는 점, 마찬가지로 직접민주주의에 기반한다는 점에서 주민자치와 궤를 같이 한다. 로컬 거버넌스는 주민자치의 한 방편으로써 지역 주민이 스스로 해결하기에 어려움이 있는 일을 제도적·행정적 차원에서 지원한다. 즉 주민자치는 지역공동체의 행위이고 로컬 거버넌스는 주민자치의 한 방편으로 정의된다. 따라서 공동체 형성은 거버넌스에 우선한다. 도서관은 공동체성을 띤 결사체로서 로컬 거버넌스에서 공동체를 형성하고 민과 관을 매개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 연구는 지역구성원이자 관에 소속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문헌분석을 입증하기 위한 연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주민자치, 즉 문제들을 직접 해결하는 ‘지역운동’은 공동체의식을 향상시킨다. 그러면 향상된 공동체의식을 바탕으로 직무만족에 대한 기대감이 증가한다. 반면 도서관이 전통적으로 하는 ‘공동체강화’에 관한 거버넌스는 그 자체로 직무만족을 향상시킨다. 이 결과는 거버넌스의 최소한의 메커니즘은 지역운동을 필요로 하는 문제의 발생과 해결 → 공동체의 형성 → 주민자치를 위한 체계의 확립 → 공동체 강화 → 요구의 충족과 행복의 실현의 순환이며, 도서관은 ‘공동체 강화’를 위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증명한다.

이 연구의 한계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잠재변수의 구성이다. 실제 현장에서 수행된 프로그램의 사례를 갖고 오면서 거버넌스에 대한 변수 구성이 포괄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기 힘들다. 특히 도서관에서 수행된 주민자치 개념의 프로그램(도서관의 지역참여와 주민 주도 촉진)만을 대상으로 하면서 통상적 의미에서의 거버넌스 유형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실제로 운영된 프로그램 사례를 측정변수로써 적용했기 때문에 실증적 차원에서 의미있을 수 있으나, 향후 연구를 통해 추가적으로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공동체의식 역시 다양한 관점의 차이로 인하여 요인이 통상적 이론과 다른 형식으로 분석되었다. 이런 점은 향후 독자적인 후속연구로써 연구해볼 필요가 있다. 둘째, 표본이 특정 지역 집단에 한정되었기 때문에 결과의 일반화에 어려움이 있다. 셋째, 이 연구는 거버넌스에 대한 기초적인 학술 개념을 바탕으로 형성되었다. 도서관과 거버넌스를 접목시키는 선행연구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거버넌스가 대안으로써 제시된 지 20년이 넘는 시점에서 거버넌스 개념에 관한 다양한 비판과 새로운 학문적 동향, 사례들이 충분히 축적된 상황이다. 이런 점을 반영하여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넷째, 도서관이 과연 '공동체'일 수 있는가 하는 문제이다. 공동체가 가치지향성, 대안적 운동성, 일정한 지리적 범위를 공유한다고 했을 때, 관으로써 도서관이 가진 정보평등을 위한 보편성이 과연 '운동성'을 담보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이다. 즉 공동체는 도서관일 수 있으나, 도서관이 공동체일 수 있는가, 공동체를 강화하는 '관', 즉 '공동체성을 띤 결사체'가 엄밀한 정의가 아닌가, 하는 부분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공무원이 해당 지역의 주민으로써 공동체의 일원임과 동시에 지방행정을 수행하는 양가적 존재임을 고려했을 때, 공무원의 공동체의식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비교연구를 향후 수행한다면 도서관의 '공동체성'에 대한 증명도 추가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참고문헌

- 곽현근. 2015. 주민자치 개념화를 통한 모형 설계와 제도화 방향. 『한국행정학보』, 49(3): 279-302.
- 김수영, 오찬옥, 문경주, 류지선. 2014. 마을공동체 형성의 인과구조 분석. 『한국지역사회복지학』, 49: 337-381.
- 김영정. 2008. 지역거버넌스와 공동체 운동. 『지역사회학』, 9(2): 5-33.
- 김의영. 2011. 굿 거버넌스 연구 분석틀: 로컬 거버넌스를 중심으로. 『한국정치연구』, 20(2): 209-234.
- 김이수. 2016. 지방자치단체 주민들의 주관적 웰빙의 결정요인 연구 - 공동체 의식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자치행정학회보』, 30(2): 157-180.

- 박상필. 2018. 경기도 사례 이천시 쓰레기소각장 건설: NIMBY 현상의 갈등해결. 수록: 박상필 엮음. 2018. 『로컬 거버넌스의 성공모델』. 서울: 대영문화사, 35-62.
- 박성우. 2014. 공공도서관의 사회자본 측정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5(1): 197-215.
- 곽현근. 2017. 지방자치 원리로서의 ‘주민자치’ 재해석을 통한 생활자치 개념화와 제도모형 구성. 『현대사회와 행정』, 27(2): 1-29.
- 국토교통부. 2018. 도시재생 뉴딜사업 신청 가이드라인. <<http://www.city.go.kr/portal/business/newDeal/businessPlan/generalAcceptNotice/view.do>> [인용 2018. 5. 2].
- 김경준, 김성수. 1998. 지역사회 주민의 공동체의식에 관한 연구. 『지역사회발전학회논문집』, 23(2): 211-232.
- 김미영. 2015. 현대사회에 존재하는 공동체의 여러 형식. 『사회와이론』, 27: 181-218.
- 김병준. 2015. 『지방자치론 (제2수정판)』. 과주: 법문사.
- 김학린. 2017. 지역사회 조정활동 참여가 공동체의식에 미치는 영향 분석. 『분쟁해결연구』, 15(1): 107-136.
- 박성우. 2016. 실행공동체 사례연구를 통한 공공도서관 역할 변화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7(4): 339-358.
- 박성우. 2018. 주민자치와의 협력을 통한 한국형 공공도서관 실행공동체 활성화 방안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9(2): 301-326.
- 서재호. 2013. 주민자치 활동 참여와 공동체 의식: 부산광역시 4개 동 주민자치센터 주민의 인식조사를 토대로.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24(2): 437-459.
- 양영균. 2012. 도시 지역공동체 형성과 작은도서관: 용인시의 사례. 『정신문화연구』, 35(2): 35-67.
- 이종수. 2015. 『공동체: 유토피아에서 마을만들기까지』. 서울: 박영사.
- 오수길, 이춘열. 2018. 주민자치와 로컬 거버넌스 사례 연구: 고양시 자치도시 실험을 중심으로. 『국정관리연구』, 13(2), 125-158.
- 오수길. 2018. 서울시 사례: 서울시 도봉구 대전차방호시설 공간재생 사업. 수록: 박상필 엮음. 2018. 『로컬 거버넌스의 성공모델』. 서울: 대영문화사, 11-34.
- 유창복. 2009. 『도시 속 마을 공동체 운동의 형성과 전개에 대한 사례 연구—성미산 사람들의 ‘마을하기’』. 석사학위논문, 성공회대학교 시민사회단체학과.
- 이성신, 성희자, 이세나. 2018. 지역사회 공동체 중심으로서의 작은도서관.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9(1): 77-97.
- 임유경, 김수빈, 김지현. 2017. 『우리 함께 만드는 공공도서관 - 구립 구산동도서관마을』. 세종:

Auri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전지훈, 정문기. 2017. 공동체 인식과 행복의 영향관계 분석 - 충청남도 마을기업 구성원을 대상으로. 『한국지방자치학회보』, 29(1): 137-166.

최문형, 정문기. 2015. 공동체의식이 주민참여에 미치는 영향. 『한국행정학보』, 49(2): 273-306.

최성욱. 2011. 참여거버넌스와 공동체의 이질성. 『국정관리연구』, 6(2): 1-31.

최재연, 김찬호. 2015. 지역 커뮤니티 거점으로서의 작은도서관의 특성과 역할. 『국토계획』, 50(4): 165-184.

Ansell, Chris. and Gash, Alison. 2008. "Collaborative Governance in Theory and Practice." *Journal of Public Administration Research and Theory*, 18(4): 543-571.

Boyte, Harry. C. 2005. "Reframing Democracy Governance, Civic Agency, and Politics."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65(5): 536-546.

Hufty, Marc. 2011. "Governance: Exploring four approaches and their relevance to research." In: Wiesmann, U., Hurni, H., et al. editors. *Research for Sustainable Development: Foundations, Experiences, and Perspectives*. Bern: Geographica Bernensia: 165-183.

Long, D. Adam. and Perkins, Douglas. D. 2003.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of the Sense of Community Index and Development of A Brief SCI."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31(3): 279-296.

McMillan, David. W. and Chavis, David. M. 1986. "Sense of Community: A Definition and Theory."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14: 6-23.

Mulhall, Stephan. and Swift, Adam. 2002.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 김해성, 조영달 공역. 서울: 한울아카데미.

Stoker, Gerry. 1998. "Governance as Theory: Five Propositions." *International Social Science Journal*, 50: 17-28.

Thompson, Edmund. R. and Phua, Florence. T. T. 2012. "A Brief Index of Affective Job Satisfaction." *Group & Organization Management*, 37(3): 275-307.

국한문 참고문헌의 영문 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Choi, Jae-Yeon. and Kim, Chan-Ho. 2015. "The Characteristic and the Role of the Community Library as a Community Center." *Journal of Korea Planning Association*, 50(4): 165-184.



- Choi, Moon-hyeong. and Jeong, Moon-gi. 2015. "The effect of sense of community on citizen participation." *Korean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49(2): 273-306.
- Choi, Sung-Wook. 2011. "Running the Participatory Governance in Heterogeneous Community." *Journal of Governance Studies*, 6(2): 1-31.
- Jeon, Gi-Hoon, Jeong, Moon-Gi 2017. "Analysis on the Effect between the Community Perception and Happiness." *Journal of local government studies*, 29(1): 137-166.
- Kim, Byong-Joon. 2015. *Local Self-Government. 2nd ed. Paju: Beopmoonsa.*
- Kim, Euiyoung. 2011. Local Good Governance: A Research Framework. *Journal of Korean Politics*, 20(2): 209-234.
- Kim, Haklin. 2017. A Study on the Effect of the Participation of Community Mediation Activities on Sense of Community: Focusing on the Experience of Kwang-Ju Community Mediation Center. *Dispute Resolution Studies Review*, 15(1): 107-136.
- Kim, Kyung-Joon. and Kim Sung-Soo. 1998. A Study on the Residents' Sense of Community in Korea. *Community Development Review*, 23(2): 211-232.
- Kim, Lee-Soo. 2016. "The Study On Factors Determining Subjective Well-being : Focusing On Moderating Effect of SoC." *Korean Journal of Local Government & Administration Studies*, 30(2): 157-180.
- Kim, Mi-Young. 2015. "Community Reality in High Modern Society." *Society and Theory*, 27: 181-218.
- Kim, Soo-Young., Oh, Chan-Ohk., Moon, Kyung-Joo. and Ryu, Ji-Seon. 2014. "Analysis of the community building system." *Journal of Community Welfare*, 49: 337-381.
- Kim, Young-Jeong. 2008. Local Governance and Community Revival Movement. *Korean Regional Sociology*, 9(2): 5-33.
- Kwak, Hyon-Kun. 2015. "The Conceptualization and Model Building of Resident Autonomy and Its Institutionalizing Direction." *Modern Society and Public Administration*, 27(2): 1-29.
- Kwak, Hyon-Kun. 2017. "the Conceptualization of Local Government by Reinterpreting Residents Autonomy as Fundamentals of Local Self-Government and Constructing System Model." *Korean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49(3): 279-302.
- Lee, Jong-Soo. 2015. *Communities: From Utophia to Making Community Design.* Seoul: Pakyoungsa.

- Lee, Seongsin., Sung, Heeja. and Lee, Sena. 2018. "Small Libraries as the Center of Local Community: Focused on the case of Atti Library."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9(1): 77-97.
- Lim, Yu-Kyeong., Kim, Soo-bin. and Kim, Ji-hyun. 2017. *The Library we make together: Goosandong Library*. Sejong: Auri.
-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2018. *A Guideline for Registration of Urban Regeneration New Deal Project*. <<http://www.city.go.kr/portal/business/newDeal/businessPlan/generalAcceptNotice/view.do>> [cited 2018. 5. 2].
- Oh, Soogil. 2018. A Case Study on Seoul. in: Park, Sangpeel eds. 2018. *Success model for local governance*. Seoul: Daeyeong CL, 11-34.
- Oh, Soogil. and Lee, Choon-Yeul. 2018. "A Case Study on Citizen Autonomy and Local Governance." *Journal of Governance Studies*, 13(2): 125-158.
- Park, Sangpeel. 2018. "A Case on the Garbage Incinerator in Icheon City." in: Park, Sangpeel eds. 2018. *Success model for local governance*. Seoul: Daeyeong CL, 35-62.
- Park, Seong-Woo. 2014. A Study on the Measurement of Social Capital Created in Public Libraries.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5(1): 197-215.
- Park, Seong-Woo. 2016. "A Study on the Changing Role of Public Libraries by the Case Studies of Community of Practice."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7(4): 339-358.
- Seo, Jae-Ho. 2013. A Study on the Participation of Local Autonomous Activities and Sense of Community - Based on the Survey of Citizens Who are Living in the Boundary of 4 Community Centers in Busan Metropolitan City -. *Korean Society and Public Administration*, 24(2): 437-459.
- Yang, Young-Kyun. 2012. "the Formation of Urban Community and Small Libraries: A case of Youngin." *Korean Studies Quarterly*, 35(2): 35-67.
- You, Chang-Bok. 2009. *A Story of Sungmisan Village, an Urban Community Village - it's Dynamics and Challenges -*. M.A. thesis., Sungkonghoe University, Republic of Korea.